

“아직 체감은 안 되지만”... 종량제봉투·세제 품귀 걱정

“하나 더 집을까 말까 고민돼요.”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품귀와 석유화학제품들의 가격 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25일 오전 광주 한 대형마트.

일상 속 대표적 석유화학제품인 주방세제들이 놓여있는 매대 앞에서 50대 주부 A씨가 고개를 가우뚱 하면서 세제를 들었다 놓길 반복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A씨는 세제를 두 개를 집어 카드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의문스러운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다침 장을 보러 나온 이날 아침 뉴스에서 본 소식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품귀와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 우려를 다룬 내용이었기에 걱정은 더욱 컸다.

A씨는 “(세제)가 하나만 필요했지만 꼭 이럴 때 하나 더 집게 되는 심리가 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수급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돌아가는 길에는 종량제봉투도 몇 장 구해가려 한다”고 했다.

마트 2층에 마련된 일회용품 코너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고객들이 다수 보였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일회용품인 비닐은 아직 재고가 쌓여있었지만 고객들은 신중한 표정으로 제품들을 눈여겨봤다. 고객들은 필요 없는 소비와 전쟁 여파에 따른 품귀를 고민하며 미간을 크게 찌푸렸다.

종량제봉투의 품귀현상 걱정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고객센터에서는 일반용 100 또는 200 구매 문의가 있었다. 자그 용도 구매가 대부분을 이룬 가운데 ‘부모님 맥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품귀와 석유화학제품들의 가격 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25일 오전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일회용품 비닐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시스

대형마트 장보러 온 손님들, 관련 제품 앞 머뭇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 평소보다 재고 하락 “코로나 마스크 대란 만큼은 아닐 것” 예측도

에 가져다 드리기 위해’라는 답변도 종종 뒤따랐다.

마트가 관리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도 평소를 밑돌고 있다. 가정 소비량이 많은 10~200 종량제 봉투는 최근 사흘 동안 급격하게 팔리면서 현재 보유량이 평소의

70% 수준이다.

다만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 걱정이 심화돼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적용된 공적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제도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에는 마스크 수급

부족 해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을 정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었다.

마트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공급 자체가 안돼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됐지만, 지금은 종량제봉투가 곳곳에서 일정량이라도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향후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부디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신영길 기자



출하늘며 채소값 ‘뚝’... 애호박·양파 두자릿수 하락 감자·고구마 등 저장채소 가격 일부 상승

최근 광주·전남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감자·고구마 등 저장채소는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소식지 ‘얼마요?’ 2606호에 따르면 최근 기준 상승에 따른 산지 출하 증가로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23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소매가격 기준 애호박(1개)은 1430원으로 2주 전보다 31.9% 하락하며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양파(1kg)는 2430원으로 10.0%, 대파(1kg)는 2300원으로 8.0% 각각 가격이 떨어졌다. /임재일 기자

흐름을 이어갔다. 사과(후지·10개)는 3만1500원으로 2주 전보다 14.9% 하락했고 배(신고·10개)도 3만5000원으로 8.6% 내렸다.

반면 저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출하 조절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고구마(밤·1kg)는 5400원으로 2주 전보다 3.8% 올랐고 감자(수미·100g)도 530원으로 6.0% 상승했다.

수산물 가운데 갈치(1마리)는 어획량 감소 영향으로 1만8600원에 거래되며 2주 전보다 1.6%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최근 산지 출하량 증가로 조미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격이 내린 채소류와 일부 수산물을 중심으로 구매하면 알뜰 장보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광주 첨단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1443가구 공급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특화 복합도시 ‘첨단3지구’에서 마지막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호반건설과 제일건설은 올해 첨단3지구 내 3개 블록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오는 5월 A7·A8블록에 ‘첨단3지구 호반써밋’ 805가구를, 제일건설은 7월 A6블록에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638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첨단3지구 내에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다.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규 분양과 함께 배후 주거지 형성도 본격화한다. 오는 10월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빌(A1블록, 1520가구)’, ‘첨단제일풍경채(A2블록, 1845가구)’, ‘첨단제일풍경

5월 호반써밋 805가구·7월 제일풍경채 638가구 등 3개 블록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조성...고용 유발 6500명 기대

채(A5블록, 584가구) 등 총 3949가구가 차례대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3 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약 362만㎡ 부지에 조성되는 확장 개발지다.

국내 최초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창업업을 중심으로 1공구(AI연구개발), 2공구(의료산업), 3공구(주거단지)로 나뉘어 개발 중이다. 내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고 개교가 예정돼 있으며, 2029년에는 국립 심뇌혈관센터가 완공된다.

또 지구 내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공원

및 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약 21.8%를 차지하며, 진원천과 학림천이 인접해 있다. 아울러 중심상업용지와 단독근린생활 시설 용지가 함께 계획돼 있어 주거와 생활 편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첨단3지구 개발에 따라 약 1조7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2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반경 7km 내 위치한 하남일반산단, 진곡일반산단 등 6개 대형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대한민국 AI 수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한전, 채용에 AI 도입... ‘자소서 진단·자격증 자동 연계’ 네이버 인증 기반 서비스 제공... 실수 예방·공정성 강화

한국전력공사가 채용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기소개서 자가 진단과 자격증 자동 연계 서비스를 채용 시스템에 도입한다.

한전은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명, 학교명 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여부를 지원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AI 자가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에는 금지어 진단 결과를 면접

관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서류 탈락 등 지원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네이버와 협업해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도 채용 시스템에 연계한다.

지원자는 자격증 번호와 취득일 등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네이버 인증을 통해 본인의 자격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저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기관이 관리하는 약 2700여개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기재 잘못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2026년 상반기 대졸 수 준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하며 채용 지원자는 27일 오전 11시까지 한전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한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의 단순 실수를 예방하고 채용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원자를 배려한 사용자 중심 채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영 기자

전남도,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구축 속도

목포대·HD현대삼호 등과 업무협약... 선박 운항 안전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선박 운항 안전관리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24일 도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삼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아비커스와 함께 해양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전남도를 거점으로 어선·연안여객선·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AI 기반 충돌 예방과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고 해양 데이터 구축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을, HD현대삼호는 제조·설치 체계 구축과 지역 제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아비커스는 AI 충돌 예방 및 자율운항 기술 개발과 데이터 수집·연계 체계 구축을 맡는다.

전남도는 2천165개의 섬(전국의 61.3%), 10톤 미만 소형선박 2만 5천442척(전국

의 42.6%), 양식어업권 5천526건(전국의 74.8%)을 보유해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실증-생산-표준화-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해양 AI 산업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후속 국책과제와 연계사업을 발굴해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해양 AI 자율운항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산업화로 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전남의 해양 환경과 참여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해양 AI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